



Reborn-Art Festival 2021-22 [2022 후기] 개최개요

명칭 Reborn-Art Festival 2021 - 22
 테마 이타와 유동성 (Altruism and Fluidity)
 기간 2022년 8월 20일 (토) ~ 10월 2일 (일) *전면휴관일 : 8월 24일 (수) ,9월 7일 (수) ,14일 (수)
 장소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가지, 오시카반도(모모노우라, 오기노하마, 아유가와)

Reborn-Art Festival 실행위원장 小林武史

큐레이터 和多利恵津子・和多利浩一 (The Watari Museum of Contemporary Art)

참가 아티스트

Mariko Asabuki / Yosuke Amemiya / Kaoru Arima / Yusuke Iseya / Tetsuya Umeda / OSGEMEOS / Motohiko Odani / Sachiko Kazama / Izumi Kato / Tadashi Kawamata / Takeshi Kobayashi / SIDE CORE (BIEN / EVERYDAY HOLYDAY SQUAD) / Yuriko Sasaoka / Hiraki Sawa / Sou Fujimoto / 目 [mé] / Takeshi Yasura / Shota Yamauchi / Kanji Yumisashi / Shinjiro Watanabe / <Production Zomia> Apichatpong Weerasethakul / Irwan Ahmett & Tita Salina / Aung Myat Htay / Ting Tong Chang / Mech Choulay & Mech Sereyath / Montika Kha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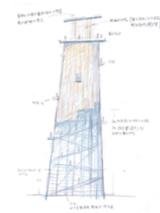
Sachiko Kazama



SIDE CORE



Yuriko Sasaoka



Tadashi Kawamata



Sou Fujimoto



OSGEMEOS



Takeshi Yasura



Shota Yamauchi



Kaoru Arima



Izumi Kato



상세 <https://www.reborn-art-fes.jp/art/>

Reborn-Art Festival 실행위원장 고바야시 다케시의 메시지

난관의 너머에 있는

새로운 확장을 위하여

「이타 利他」란 그 자체를 명확히 내세우고자 하면, 이내 그 모습을 감추고 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3년째에 접어든 현재, 아직도 새로운 전개로 우리를 밀어내려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설마 했던 전쟁이, 어디로 흘러갈 지 알 수 없는 타류를 일으키고 있다.

어떤 말로 맞서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 그러나 희망은 잃지 않는다.

이러한 시대에 이타의 감각이 어떻게 기능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예술과 음식, 음악의 표현 안에 분명히 잠재하고 있다.

모든 생명과, 그 근원과의 이어짐을 느끼기 위하여,

그리고 난관의 너머에 있는 새로운 확장을 위하여, 또 다시 리본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Reborn-Art Festival 이란

리본 아트 페스티벌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를 주 무대로 하는 「아트」 「음악」 「음식」의 종합 예술제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역에서

「Reborn-Art=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키워드로 내세워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3회의 개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이라는 절목에서, 코로나와 마주하며 2기에 걸쳐 실시. 「이타와 유동성」을 테마로 2021년 여름(전기)와 2022년 여름(후기)에 개최합니다.

전쟁 재해에 의한 새로운 불안이 세계를 덮친 지금, 다양한 표현을 통해 지금껏 본 적 없는 신세계로 향하고자 합니다.

Reborn-Art Festival Office info@reborn-art-fes.jp

<https://www.reborn-art-fes.jp/>